

<輿論調査>

農民의 社會觀과 教育觀

李 東 奎*

I. 머리말

이런 調査는 우리나라 經濟全般이 轉換期에 處해 있으며 農業 역시 轉換의 時期를 맞이하여 構造的 再編成이 要請되는 時點에서 農民의 基本的 慾求와 價値觀을 把握, 農政의 基礎資料로 提供하는 本研究院 固有業務의 一環으로 進行하였다.

1. 標本選定方法

全國 農村指導所 支所當 上·中·下 3個部落을 指定, 部落當 5名씩 總 19,965名을 對象으로 現地通信員希望與否를 調査한 바 58%에 해당하는 11,600名의 希望者가 있었다.

이들중 900名을 道別 農家戶數比例로 無作爲 抽出하되 漏落되는 市郡이 없도록 市郡別로 配例한 후 施行하였다. 그러나 現地通信員希望者의 約 33%가 새마을 指導者였으므로 衡平과 對照의 必要性을 考慮하여 카톨릭농민회로부터 50名을 추천받아 追加하였다(表 1, 表 2)

2. 調査事項

가. 調査對象者의 人口, 社會, 經濟, 地理學的인 一般背景.

나. 社會觀과 教育觀.

3. 調査方法

農政輿論調査 現地通信員 委囑과 同時에 選定된 調査對象者에게 郵便으로 設問紙를 發送, 回收 623枚(65.4%).

4. 調査期間

1978年 10月 1日~10月 20日

5. 分析方法

가. 回收된 調査表중 늦게 到着한 21枚와 記入不良한 13枚를 제외하고 587枚를 分析對象으로 하여 調査對象者의 意思를 從屬變數로, 社會·經濟·地理學的 變數를 獨立變數로 하여 相互交叉시켜 頻度表를 作成하였다.

나. 資料의 處理 및 統計의 分析은 SPSS에 의하여 컴퓨터로 處理하였다.

表 1 通信員 및 全國農家의 道別分布 單位: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국	11.1	5.7	6.9	12.7	11.3	18.3	17.3	13.6	2.4
통신원	11.2	6.0	7.2	12.5	11.5	18.2	17.3	13.9	2.2

전국통계: 1978년 농림통계 연보

表 2 通信員 및 全國農家의 耕地規模別 家口數 單位: %

	경종외	0.5ha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전 국	4.9	29.8	34.5	17.7	7.4	4.4	1.3
통신원	2.4	18.9	38.7	23.7	9.4	4.6	2.4

전국통계: 1978년 농림통계 연보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査室長

II. 概 況

1. 調查의 方向

本調査는 60年代 이래 持續해 온 急速한 工業化의 餘波와 技術革新, 農產物需要패턴의 變化等 農業·農村의 內外部의 激變이 農民의 價値觀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에 主眼點을 두었다.

이에 設問도 農業從事에 만족하는가, 70年代 初보다 잘 살게 되었는가, 잘 살게 되었다면 그 要因은 무엇인가, 農村의 未來像과 都市의 未來像을 비교할 때 그 展望, 늘어난 所得 또는 期待하던 所得이 생겼을 때 어디다 쓸 것인가, 계속 농촌에 머무를 것인가, 子女에게 農業을 勸獎할 것인가를 물었다.

2.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背景

年齡別 構成을 보면 40代가 45.5%, 30代가 34.6%로 합계 80.1%에 달하며 20代미만 50代以上은 10%내외였다. <表 3>

學歷別 分布는 中卒 40.5%, 高卒 34.4%로 大卒을 포함하면 中卒以上이 80.9%로 全國農家

의 平均學歷보다 매우 높은 水準이었다. <表 4> 그러나 學歷과 耕地規模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相關關係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國卒, 中卒, 高卒의 最頻值가 全國平均과 같은 0.5~1ha인데 반하여 大卒은 오히려 이들보다 낮은 0.5ha 미만이 가장 많았다.

耕地規模別 分布는 全國平均보다 多少 높은 水準이어서 0.5ha 미만은 전국 평균 29.4%보다 적은 18.9%, 0.5~1ha 농가는 전국평균 17.3%보다 다소 많은 23.7%였다. <表 6>

III. 調查內容 및 分析結果

1. 社會觀

가. 農業從事의 滿足度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대한 應答分析이다.

標本全體를 보면 아주불만 4.1%, 조금불만 19.4%, 그저 그렇다 25.9%로 불만족이 49.4%였으며, 대체로 만족 39.9%, 매우 만족 9.4%로 만족하는 편의 농민은 49.3%여서 단 0.1%의 차이밖에 나지않는 반반이었다.

地域別로 比較하면 만족하는 비율은 慶北이

表 3 標本の 年齡別 分布

(괄호안은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20세미만	0	0	2 (4.8)	0	0	2 (1.9)	1 (1.1)	1 (1.2)	0	6 (1.1)
20~29세	4 (6.0)	9 (21.4)	4 (9.5)	8 (11.8)	11 (15.5)	16 (15.4)	6 (6.6)	7 (8.2)	2 (11.8)	67 (11.4)
30~39세	27 (40.3)	15 (35.7)	22 (52.4)	15 (22.1)	24 (33.8)	35 (33.7)	29 (31.9)	27 (31.8)	9 (52.9)	203 (34.6)
40~49세	32 (47.8)	17 (40.5)	12 (28.6)	40 (58.8)	29 (40.8)	39 (37.5)	49 (53.8)	43 (50.6)	6 (35.3)	267 (45.5)
50~59세	4 (6.0)	1 (2.4)	1 (2.4)	4 (5.9)	5 (7.0)	12 (11.5)	6 (6.6)	6 (7.1)	0	39 (6.6)
60세이상	0	0	1 (2.4)	1 (1.5)	2 (2.8)	0	0	1 (1.2)	0	5 (0.9)
계	67 11.4 (100.0)	42 7.2 (100.0)	42 7.2 (100.0)	68 11.6 (100.0)	71 12.1 (100.0)	104 17.7 (100.0)	91 15.5 (100.0)	85 14.5 (100.0)	17 2.9 (100.0)	587 100.0

表 4 標本の學歷別 分布

(괄호안은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무	학	0	0	0	0	1 (1.4)	0	1 (1.1)	1 (1.2)	0	3 (0.5)
국	해	0	0	0	1 (1.5)	0	2 (1.9)	0	1 (1.2)	0	4 (0.7)
국	졸	10 (14.9)	10 (23.8)	10 (23.8)	18 (26.5)	11 (15.5)	15 (14.4)	14 (15.4)	16 (18.8)	1 (5.9)	10.5 (17.9)
중	졸	28 (41.8)	16 (38.1)	19 (45.2)	21 (30.9)	26 (36.6)	47 (45.2)	41 (45.1)	38 (44.7)	2 (11.8)	238 (40.5)
고	졸	24 (35.8)	13 (31.0)	12 (28.6)	22 (32.4)	28 (39.4)	36 (34.6)	30 (33.0)	24 (28.2)	13 (76.5)	202 (34.4)
대	졸	5 (7.5)	3 (7.1)	1 (2.4)	6 (8.8)	5 (7.0)	4 (3.8)	5 (5.5)	5 (5.9)	1 (5.9)	35 (6.0)
계		67 (100.0)	42 (100.0)	42 (100.0)	68 (100.0)	71 (100.0)	104 (100.0)	91 (100.0)	85 (100.0)	17 (100.0)	587 (100.0)

表 5 學歷別 耕地規模

	무응답	무학	국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계				
무응답	0	0	0	1(1.0)	2(0.8)	2(1.0)	2(5.7)	7(1.2)				
경종의	0	1	0	2(2.0)	1(0.4)	2(1.0)	1(2.9)	7(1.2)				
0.5ha미만	0	0	1	22(21.0)	47(19.8)	32(15.8)	9(25.7)	111(18.9)				
0.5~1ha	2	0	2	46(43.6)	95(39.9)	77(38.2)	5(14.3)	227(38.7)				
1~1.5ha	0	0	1	20(19.0)	59(24.8)	52(25.7)	7(20.0)	139(23.7)				
1.5~2ha	0	0	0	9(8.6)	24(10.1)	18(8.9)	4(11.4)	55(9.4)				
2~3ha	0	0	0	4(3.8)	5(2.1)	15(7.4)	3(8.6)	27(4.6)				
3ha이상	0	0	0	1(1.0)	5(2.1)	4(2.0)	4(11.4)	14(2.4)				
계	2	0.3	4	105	17.9	238	40.5	202	34.4	35	6.0	587(100)

表 6 耕地面積別 分布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경종의	2 (3.0)	2 (4.8)	1 (2.4)	4 (5.9)	1 (1.4)	1 (1.0)	1 (1.1)	2 (2.4)	0	14 (2.4)
0.5ha 미만	13 (19.4)	8 (19.0)	12 (28.6)	9 (13.2)	9 (12.7)	14 (13.5)	20 (22.0)	26 (30.6)	0	111 (18.9)
0.5~1ha	23 (34.3)	12 (28.6)	15 (35.7)	30 (44.1)	24 (33.8)	41 (39.4)	39 (42.9)	36 (42.4)	7 (41.2)	227 (38.7)
1~1.5ha	15 (22.4)	12 (28.6)	9 (21.4)	14 (20.6)	19 (26.8)	33 (31.7)	22 (24.2)	13 (15.3)	2 (11.8)	139 (23.7)
1.5~2ha	10 (14.9)	3 (7.1)	4 (9.5)	7 (10.3)	8 (11.3)	6 (5.8)	5 (5.5)	7 (8.2)	5 (29.4)	55 (9.4)
2~3ha	3 (4.5)	2 (4.8)	1 (2.4)	3 (4.4)	6 (8.5)	6 (5.8)	2 (2.2)	1 (1.2)	3 (17.6)	27 (4.6)
3ha 이상	1 (1.5)	3 (7.1)	0	1 (1.5)	4 (5.6)	3 (2.9)	2 (2.2)	0	0	14 (2.4)
계	67 (100.0)	42 (100.0)	42 (100.0)	68 (100.0)	71 (100.0)	104 (100.0)	91 (100.0)	85 (100.0)	17 (100.0)	587 (100.0)

55%, 全南이 52.9%로 높은 편이었으며 영농조건이 좋은 濟州는 82.3%나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에 불만의 비중은 忠北, 忠南, 全北, 慶南의 順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농업종사에 대한 不滿이 컸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表 7>

耕地規模別로는 0.5ha미만 농가와 3ha 이상농

表 7 學歷別 農業從事 滿足度

(괄호안은 %)

	무응답	아 불 만	주 만	조 만	금 만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만 족	매 우 만 족	모 르 겠 다	계
국 졸	1 (0.9)	7 (6.3)	29 (26.1)	31 (27.9)	33 (29.7)	10 (9.0)	0	111 (100.0)	19.1	
중 졸	1 (0.4)	9 (3.8)	40 (16.8)	59 (24.8)	104 (43.7)	22 (9.2)	3 (1.3)	238 (100.0)	40.5	
고 졸	2 (1.0)	6 (3.0)	40 (19.8)	51 (25.2)	81 (40.1)	21 (10.4)	1 (0.5)	202 (100.0)	34.4	
대졸 이상	0	2 (5.7)	4 (11.4)	11 (31.4)	16 (45.7)	2 (5.7)	0	35 (100.0)	6.0	
계	4 0.7	24 4.1	114 19.4	152 25.9	234 39.9	55 9.4	4 0.7	587 100.0		

表 8 耕地規模別 農業從事 滿足度

	무응답	아 주 불 만	조 금 불 만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만 족	매 우 만 족	모 르 겠 다	계
무 응 답	0	0	1 (14.3)	3 (42.9)	3 (42.9)	0	0	7 1.2 (100)
경 중 의	2 (28.6)	0	3 (42.9)	1 (14.3)	1 (14.3)	0	0	7 1.2 (100)
0.5ha	0	6 (5.4)	27 (24.3)	27 (24.3)	40 (36.0)	8 (7.2)	3 (2.7)	111 18.9 (100)
0.5~1ha	2 (0.9)	5 (2.2)	44 (19.4)	57 (25.1)	97 (42.7)	22 (9.7)	0	227 38.7 (100)
1~1.5ha	0	8 (5.8)	26 (18.7)	4 (29.5)	49 (35.3)	14 (10.1)	1 (0.7)	139 23.7 (100)
1.5~2ha	0	5 (9.1)	5 (9.1)	13 (23.6)	26 (47.3)	6 (10.9)	0	55 9.4 (100)
2~3ha	0	0	3 (11.1)	7 (25.9)	14 (51.9)	3 (11.1)	0	27 4.6 (100)
3ha 이상	0	0	5 (35.7)	3 (21.4)	4 (28.6)	2 (14.3)	0	14 2.4 (100)
계	4 0.7	24 4.1	114 19.4	152 25.9	234 39.9	55 9.4	4 0.7	587 100

表 9 農村生活水準에 대한 耕地規模別反應

	무응답	매 우 해 졌 다	약 간 해 졌 다	마 찬 가 저 다	약 간 향 상 되 었 다	훨 씬 향 상 되 었 다	모 르 겠 다	계
무 응 답	0	0	0	0	2 (28.6)	5 (71.4)	0	7 1.2 (100)
경 중 의	0	1 (14.3)	0	0	3 (42.9)	3 (42.9)	0	7 1.2 "
0.5ha 미만	0	5 (4.5)	0	2 (1.8)	45 (40.5)	59 (53.2)	0	111 18.9 "
0.5~1ha	1 (0.4)	0	0	5 (2.2)	90 (39.6)	130 (57.3)	1 (0.4)	227 38.7 "
1~1.5ha	0	2 (1.4)	1 (0.7)	2 (1.4)	54 (38.8)	80 (57.6)	0	139 23.7 "
1.5~2ha	0	0	1 (1.8)	4 (7.3)	16 (29.1)	34 (61.8)	0	55 9.4 "
2~3ha	0	0	0	1 (3.7)	7 (25.9)	19 (70.4)	0	27 4.6 "
3ha 이상	0	0	0	0	9 (64.3)	5 (35.7)	0	14 2.4 "
계	1 0.2	8 1.4	2 0.3	14 2.4	226 38.5	335 57.1	1 0.2	587 100

가에 불만이 많았으며 0.5~3ha의 계층에서는
만족하고 있었다. <表 8>

나. 農村의 生活水準

農村의 生活水準은 5년전에 비해서 어떻게 생

각하느냐는 質問에 대한 應答.

약간 向上 38.5%, 매우 向上 57.1%로 전체의
95.6%가 生活水準의 向上을 自認하고 있다. 學
歷別로는 「훨씬 向上」의 경우 中率は 60.1%로

높은 反應을 보이는데 反해 大卒은 42.3%였으며 國卒과 高卒은 거의 비슷한 57.1%와 55.9%였다.

地域別로는 慶南(54.1%) 全北(52.1%)이 「약간 向上」의 反應을 보인 外에 全地域이 훨씬 向上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濟州는 94.1%가 훨씬 向上되었다고 보고 있다.

耕地規模別로는 規模가 커질수록 「훨씬 向上」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으나 3ha 以上은 例外이다. (表 9)

다. 農家所得과 都市勤勞者 戶當所得

農民들도 거의 예외없이 農村의 生活水準 向上을 인정하고 있고 또 1人當 所得은 都市勤勞者의 87.9%(77년)이나 戶當으로 換算하면 1974년 이래 農家口當 所得이 都市勤勞者의 家口當所得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農民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는 年間 農家戶當所得이 都市勤勞者 戶當所得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이란 設問에 대해 懷疑的 反應이 56.4% 肯定的 反應은 34.4%였으나 『모르겠다』는 見解도 9.3%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地域別로는 濟州를 제외한 全地域이 懷疑的이었으며 肯定과 否定의 隔差는 全南이 27.9%:63.5%로 가장 크고 다음은 慶南, 全北의 順이었다. (表 10)

耕地規模別로 본 肯定 否定間의 隔差는 3ha이 상의 大農이 가장 커서 21.4%:71.4%였고 다음은 0.5ha미만의 28.8%:61.3%였으나 2~3ha 농가는 否定 44.4%, 肯定 40.7%의 근소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都·農間戶當 所得差異가 微微해서(74년 4.7%, 75년 1.6%, 76년 0.4%, 77년 2%) 優劣을 區分키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戶當所得과

表 10 “農家戶當所得이 都市勤勞者 所得을 앞지르고 있다”에 대한 地域別反應

	아 니 다		그 럽 다		모 르 겠 다		계	
경기	39	58.2	21	31.3	7	10.5	67	(100)
강원	23	54.8	14	33.3	5	11.9	42	(100)
충북	19	45.2	17	40.5	6	14.3	42	(100)
충남	32	47.1	29	42.6	7	10.3	68	(100)
전북	46	64.8	23	32.4	2	2.8	71	(100)
전남	66	63.5	29	27.9	9	8.7	104	(100)
경북	49	53.8	35	38.5	7	7.7	91	(100)
경남	52	61.2	23	27.1	10	11.8	85	(100)
제주	5	29.4	11	64.7	1	5.9	17	(100)
全體	331	56.4	202	34.4	54	9.3	587	(100)

人當所得을 混同할 가능성도 크고, 또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닌 數値間의 비교이기 때문에 오는 現象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도적 農民層의 反撥要因중의 하나임을 지적해 둔다.

라. 農村과 都市의 將來生活環境에 대한 展望을 물은 바 都市보다 農村이 살기 좋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8.2%, 都市와 비슷한 것이다가 23.2%, 都市보다 못할 것이다가 50.4%, 都市보다 훨씬 살기 나쁠 것이다가 7.7%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全北 67.6% 慶北 60.4%, 江原 59.5%, 忠北 59.4% 등 山間지역이 都農間 隔差가 深化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京畿(47.5%)와 慶南(42.5%)은 도시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으로 展望하는 比率이 높았다.

그러나 여러모로 例外인 濟州는 무려 64.7%가 都市와 비슷하거나 더 살기 좋게 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어 對照的이다.

都農間隔差에 관하여 學歷間에 큰 차이는 없으나 高卒以上과 國卒은 多少 悲觀的이며 中卒은 樂觀하고 있었다.

耕地規模別로 보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强하게 나타난다. 標本農家中에서 가장 多數를 차

表 11 耕地規模別 農村의 未來展望

(괄호안은 %)

	무응답	도시보다 격차 가 더욱 심화	도시보다 격차 가 줄어 들 것임	도시와 비슷한 시준	도시보다 격차 가 늘 어질 것임	모르겠다	계
무응답	0	1	5	0	1	0	7(100.0)
경 중 외	0	1	5	1	0	0	7(100.0)
0.5ha	0	9	64	20	17	1	111(100.0)
0.5ha~1ha	1	12	99	60	54	1	227(100.0)
1~1.5ha	0	11	81	32	15	0	139(100.0)
1.5~2ha	0	6	23	12	14	0	55(100.0)
2~3ha	0	3	11	8	5	0	27(100.0)
3ha 이상	0	2	8	3	1	0	14(100.0)
계	1	45	296	136	107	2	587
	0.2	7.7	50.4	23.2	18.2	0.3	100.0

表 12 地域別 定着意思

	무응답	도시로 이주	계속 머무르고 싶다	도시에서 돈을 벌 어 다시 오겠다	모르겠다	계
경 기	0	11	48	8	0	67(100.0)
강 원	0	11	28	5	2	42(100.0)
충 북	0	8	28	6	0	42(100.0)
충 남	1	13	49	5	0	68(100.0)
전 북	0	14	48	6	3	71(100.0)
전 남	1	23	60	17	3	104(100.0)
경 북	1	14	63	11	2	91(100.0)
경 남	0	9	66	7	3	85(100.0)
계 주	0	2	13	2	0	17(100.0)
계	3	101	403	67	13	587
	0.5	17.2	68.7	11.4	2.2	100.0

지하는 1~2ha 農家は 5.3%만이 都·農間 隔差를 우려하고 있는데 反하여 1ha 미만과 2~3ha 農家は 8% 内外가, 耕種外農家와 3ha이상 農家は 14.3%가 이 격차가 더욱 深化될 것으로 보고 있다. <表 11 參照>

마. 定着과 離農意思

工業化라는 歷史의 흐름을 타고 農民과 子女들은 就業과 教育을 위해서 農村을 떠났고 또

앞으로도 農業勞動力의 流出은 계속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대한 農民 自身들의 意思를 물었다. 全體 意思는

『계속 머무르고 싶다.』 68.7%, 『都市로 移住하겠다.』 17.2%, 『都市로 나가 돈을 벌어 農村으로 돌아오겠다.』 11.4%였다.

地域別로는 全南, 忠北, 慶北의 順으로 離農意思가 높고 慶南, 濟州, 忠南의 順으로 定着意

表 13 耕地規模別 定着意思

(괄호안은 %)

	무응답	도시로 이주	머무르고 싶다	도시에서 돈을 벌 어 농촌으로 다시 오겠다	모르겠다	계
무응답	0	3	3	1	0	7(100.0)
		(42.9)	(42.9)	(14.3)		1.2
경종외	1	1	5	0	0	7(100.0)
	(14.3)	(14.3)	(71.4)			1.2
0.5ha 미만	1	20	65	23	2	111(100.0)
	(0.9)	(18.0)	(58.6)	(20.7)	(1.8)	18.9
0.5~1ha	1	29	167	25	5	227(100.0)
	(0.4)	(12.8)	(73.6)	(11.0)	(2.2)	38.7
1~1.5ha	0	31	90	13	5	139(100.0)
		(22.3)	(64.7)	(9.4)	(3.6)	23.7
1.5~2ha	0	9	42	4	0	55(100.0)
		(16.4)	(76.4)	(7.3)		9.4
2~3ha	0	7	19	1	0	27(100.0)
		(25.9)	(70.4)	(3.7)		4.6
3ha 이상	0	1	12	0	1	14(100.0)
		(7.1)	(85.7)		(7.1)	2.4
계	3	101	403	67	13	587
	0.5	17.2	68.7	11.4	2.2	100.0

表 14 學歷別 定着意思

	무응답	도시로 이주	계속 머무르고 싶다	도시에서 돈을 벌 어 농촌으로 다시 오겠다	모르겠다	계
국졸이하	0	31	64	13	2	110
		(28.2)	(58.2)	(11.9)	(1.9)	(100.0)
중졸	1	40	169	22	6	238
	(0.5)	(16.8)	(71.0)	(9.3)	(2.6)	(100.0)
고졸	2	26	143	27	4	202
	(1.0)	(12.9)	(70.8)	(13.4)	(2.0)	(100.0)
대졸이상	0	3	26	5	1	35
		(8.6)	(74.3)	(14.3)	(2.9)	(100.0)
계	3	101	403	67	13	587
	0.6	17.2	68.7	11.5	2.3	100.0

表 15 年齡別 定着意思

	무응답	이농	정착	도시에서 돈을 벌 어 귀농	모르겠다	계
무응답	0	0	1	0	0	1 0.2(100)
20세 미만	0	1	3	1	0	5 0.9 "
20~29	0	8	42	13	4	67 11.4 "
30~39	1	38	130	27	7	203 34.6 "
	(0.5)	(18.7)	(64.0)	(13.3)	(3.4)	
40~49	2	47	192	24	2	267 45.5 "
	(0.7)	(17.6)	(71.9)	(9.0)	(0.7)	
50~59	0	7	31	1	0	39 6.6 "
		(17.9)	(79.5)	(2.6)		
60세 이상	0	0	4	1	0	5 0.9 "
			80.0	(20.0)		
계	3	101	403	67	13	587 100 "
	0.5	17.2	68.7	11.4	2.2	

想法 높았다. <表 12>

學歷別로는 國卒의 42%가 離農의 뜻을 나타냈고 學歷이 높아질수록 定着意思도 높았다.

<表 14>

耕地面積別로는 1ha미만의 38.7%가 離農을 바라는 외에 階層에 따른 傾向은 찾아볼 수 없

으나 1~2ha 農家の 定着希望率이 가장 높고 2~3ha階層의 離農意思가 의외로 높았다. <表 13>

所得水準別로 보아도 비슷한 傾向이 나타났다. 年間所得 70萬원 미만 農家の 離農意思가 가장 높고 그 이외에는 100萬원~160萬원 階層의 定

着意思가 相對的으로 높은데 反하여 的의로 160萬원~190萬원 農家は 離農意思가 他階層보다 높았다.

年齡別로는 年齡이 많을수록 定着希望率도 높아져서 10代 60.0%, 20代 62.7%, 30代 64.0%, 40代 71.9%, 50代 69.5%, 60代 80%로 나타났다.

離農意思是 17%~20%로 年齡階層間에 큰 차이가 없으나 20代만은 11.9%가 離農意思를 나타냈다. <表 15>

이 問項은 農民特有의 歸巢性을 考慮하여 離農과 定着외에 『都市에 나가 돈을 벌어서 돌아 오겠다』는 項目을 넣었다. 耕地面積이 적을수록 離農歸村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表 14> 3ha 이상의 大農中에는 한사람도 離農後歸村意思가 없었다.

所得水準別로는 50~70만원 농가의 25.8%와 50만원 미만 農家の 26.1%가 離農後歸村意思를 나타냈다.

그 외에는 所得이 많을수록 離農後歸村意思가 줄어들으나 190만원~220만원 階層만은 例外的으로 높은 反應을 보였다. 學歷別로는 國卒을 除外하고는 學歷이 높을수록 離農後歸村意思가 많았다. <表 13>

年齡別로는 年齡이 낮을수록 離農後歸村意思가 높아 10代는 20.0%, 20代는 19.4%, 30代는 13.3%, 40代는 9.0%였으나 50代는 2.6%에 불과했다. <表 15>

바. 農村生活向上的 要因

前述한 바와 같이 平均의 農民은 都市勤勞者보다 잘 산다고 믿지도 않으며 앞으로 都市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約半數는 農業從事에 만족하면서 營農을 계속 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異口同聲으로 農村의 生活水

準은 크게 向上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 어떤 要因이 農村의 生活를 向上시켰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分析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 견해는 다음의 順位와 같다.

- ① 水稻 新品種의 開發普及 : 46.3%
- ② 새마을 運動 : 28.0%
- ③ 農家技術의 科學化와 機械化 : 14.8%
- ④ 交通, 通信의 발달 : 3.1%

地域別로 보면 全南·北 應答者의 60.6%가 新品種 開發의 덕분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은 忠南(54.4%), 忠北(50.0%)의 順이었다.

새마을 運動에 큰 比重을 둔 地域은 慶南(34.1%)으로 新品種보다도 큰 比重을 두었으며, 다음은 忠北(33.3%), 江原(31.0%)의 順이었다. 특히 濟州는 52.9%가 生活向上的 功勞를 새마을 運動에 돌리고 있다. 새마을 運動의 비중을 낮게 본 地域은 忠南과 全北이었다.

農業技術의 科學化와 機械化에 相對的으로 큰 比重을 둔 地域은 慶南(20.0%), 慶北(19.8%), 江原(19%)이 있으며, 全南(6.7%)과 忠北(7.1%)은 科學化와 機械化의 役割을 낮게 評價하고 있었다.

한편 水稻新品種의 普及이 不可能한 濟州는 29.4%가 科學化와 機械化를 生活向上的 要因으로 보고 있었다. <表 16>

耕地規模別로는 0.5ha 미만의 小農과 1.5ha 이상의 大農이 新品種開發에 比重을 더 두고 있으며, 특히 3ha 이상의 大農은 64.3%가 新品種 때문에 所得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表 17>

새마을 運動에 대해서는 0.5~1ha의 階層과 1~1.5ha의 階層이 큰 比重을 두는데 反해 小農과 3ha 이상의 大農은 낮은 反應을 보였다. 例外的으로 2~3ha의 農家가 新品種보다 새마을

表 16 地域別 農村生活向上의 要因

(괄호안은 %)

	잘알게 된 것이 없다	농산물가격조건개선때문에	신품종개발	농업기술의 과학화(기계화)	교통통신발달(일일생활권)	새마을운동	계
경 기	2 (3.0)	0	30 (44.8)	11 (16.4)	2 (3.0)	20 (29.9)	67(100.0) 11.4
강 원	1 (2.4)	2 (4.8)	17 (40.5)	8 (1.0)	1 (2.4)	13 (31.0)	42(100.0) 7.2
충 북	1 (2.4)	1 (2.4)	21 (50.5)	3 (7.1)	1 (2.4)	14 (33.3)	42(100.0) 7.2
충 남	0	1 (1.5)	37 (54.4)	10 (14.7)	4 (5.9)	14 (20.6)	68(100.0) 11.6
전 북	1 (1.4)	2 (2.8)	43 (60.6)	8 (11.3)	0	16 (22.5)	71(100.0) 12.1
전 남	5 (4.8)	0	63 (60.6)	7 (6.7)	0	28 (26.9)	104(100.0) 17.7
경 북	0	3 (3.3)	35 (38.5)	18 (19.5)	4 (4.4)	26 (28.6)	91(100.0) 15.5
경 남	4 (4.7)	4 (4.7)	26 (30.6)	17 (20.0)	3 (3.5)	29 (34.1)	85(100.0) 14.5
계	0 14 2.4	0 13 2.2	0 272 46.3	5 87 14.8	3 18 3.1	9 169 28.8	17(100.0) 2.9 587 100.0

表 17 耕地規模別 農村生活向上의 要因

	무응답	잘알게 된 것이 없다	농산물가격조건개선때문에	신 품 종 개발(과학화)	농업기술의 과학화(기계화)	교통통신발달(일일생활권)	농협의 협조	새마을운동	농업취업기회	기 타	계
무 응 답	0	0	0	3 (42.9)	1 (14.3)	0	0	3 (42.9)	0	0	7(100.0) 1.2
경 중 의	1 (14.3)	0	0	3 (14.3)	0	0	0	3 (42.9)	0	0	7(100.0) 1.2
0.5ha	0 (0.9)	3 (2.7)	0	58 (52.3)	11 (9.9)	9 (8.1)	0	25 (22.5)	1 (0.9)	3 (2.7)	111(100.0) 18.9
0.5~1ha	0	3 (1.3)	9 (4.0)	101 (44.5)	35 (15.4)	4 (1.8)	1 (0.4)	71 (31.3)	2 (0.9)	1 (0.4)	227(100.0) 38.7
1~1.5ha	0	5 (3.6)	1 (0.7)	62 (44.6)	25 (18.0)	1 (0.7)	1 (0.7)	42 (30.2)	1 (0.7)	1 (0.7)	139(100.0) 23.7
1.5~2ha	0	2 (3.6)	2 (3.6)	27 (49.1)	8 (14.5)	3 (5.5)	0	12 (21.8)	0	1 (1.8)	55(100.0) 9.4
2~3ha	0	0	0	9 (33.3)	6 (22.2)	1 (3.7)	0	11 (40.7)	0	0	27(100.0) 4.6
3ha 이상	0	1 (7.1)	1 (7.1)	9 (64.3)	1 (7.1)	0	0	2 (14.3)	0	0	14(100.0) 2.4
계	0 2 0.3	14 2.4	3 2.2	272 46.3	87 14.8	18 3.1	2 0.3	169 28.8	4 0.7	6 1.0	587 100.0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들중에 상당수가 새마을 지도자일 것으로 보인다.

學歷別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新品種의 寄與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새마을 運動에 대해서는 學歷間에 큰 차이는 없으나 國卒이 낮았다. 農業技術의 科學化를 가장 높이 評價한 學歷階層은 高卒이었다. <表 18>

사. 投資優先順位

소득이 올라 生活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應答이다.

標本全體는 子女教育 37.5%, 營農部門 擴大 28.2%, 部落事業 11.9%, 貯蓄 8.0%, 農機械 장만 8.0%의 反應을 보였다.

子女教育을 더 시키겠다는 反應의 경우 지역 別로는 全北이 가장 높고, 慶北, 忠南, 江原이 平均以上이었다.

表 18 學歷別 農村生活上의 要因

(괄호안은 %)

	무응답	잘알게 되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하여	신 기술 품 종 발 달	농 업 기 구 의 과 화 (기 계 화)	교 통 수 단 의 발 달 (일 일 생활)	농 업 의 수 익 증 진	새 마을 운 동	농 촌 위 업 기 회 와 확 대	기 타	계
국 졸	1 (0.9)	5 (4.6)	3 (2.7)	54 (49.1)	16 (14.6)	4 (3.6)	0	29 (24.5)	0	0	112 19.1(100.0)
중 졸	1 (0.4)	5 (2.1)	5 (2.1)	113 (47.5)	33 (13.9)	4 (1.7)	0	71 (29.8)	3 (1.3)	3 (1.3)	238(100.0) 40.5
고 졸	0	3 (1.5)	2 (1.0)	93 (46.0)	35 (17.3)	6 (3.0)	2 (1.0)	58 (28.7)	1 (0.5)	2 (1.0)	202(100.0) 34.4
대 졸 이 상	0	1 (2.9)	3 (8.6)	12 (34.3)	3 (8.6)	4 (11.4)	0	11 (31.4)	0	1 (2.9)	35(100.0) 6.0
계	2 3.0	14 2.4	13 2.2	272 46.3	87 14.8	18 3.1	2 0.3	169 28.8	4 0.7	6 1.0	587(100.0) 100.0

表 19 耕地規模別 所得增加時의 投資優先 順位

	영 농 부 분 을 확 대	자 녀 들 에 게 교육 을 시 켜 줄 것 이다	전 기 생 활 수 입 을 증 진 시킬 것 이다	농 업 기 구 의 과 화 (기 계 화)	집 을 고 쳐 줄 것 이다	농 기 계 를 장 관 할 것 이다	저 축 을 하 줄 것 이다	부 락 사 업 에 기 여 줄 것 이다	산 을 사 줄 것 이다
0.5ha	39 (35.5)	36 (32.7)	1 (0.9)	2 (1.8)	4 (3.6)	7 (6.3)	14 (12.7)	4 (3.6)	
0.5~1ha	62 (27.3)	91 (40.1)	1 (0.4)	4 (1.8)	15 (6.6)	19 (8.2)	27 (11.9)	2 (0.9)	
1~1.5ha	38 (27.3)	56 (40.3)	1 (0.7)	1 (0.7)	14 (10.1)	8 (7.2)	15 (10.8)	0	
1.5~2ha	15 (27.3)	20 (36.4)	0	1 (1.8)	7 (12.7)	5 (9.1)	7 (12.7)	0	
2~3ha	2 (7.4)	11 (40.7)	2 (7.4)	0	4 (14.8)	3 (11.1)	5 (18.5)	0	
3ha 이상	5 (35.7)	3 (21.4)	0	0	2 (4.3)	1 (7.1)	0	1 (7.1)	
계	165 28.2	220 37.5	5 0.9	8 1.4	47 8.0	47 8.0	70 11.9	8 1.4	

(無應答, 其他는 省略)

表 20 농업을 자녀에게 권장할 것인가

	무응답	다른 직업 을 택 하 고 싶 다	자 녀 들 의 자 율 적 의 사 라 고 하 고 싶 다	전 체 로 찬 성 하 고 하 고 싶 다	모 르 겠 다	계
경 기	0	9 (13.4)	53 (79.1)	4 (6.0)	1 (1.5)	67(100.0) 11.4
강 원	0	6 (14.3)	31 (73.8)	5 (11.9)	0	42(100.0) 7.2
충 북	1 (2.4)	11 (26.2)	27 (64.3)	3 (7.1)	0	42(100.0) 7.2
충 남	0	15 (22.1)	52 (76.5)	1 (1.5)	0	68(100.0) 11.6
전 북	1 (1.4)	18 (25.4)	46 (64.8)	6 (8.5)	0	71(100.0) 12.1
전 남	1 (1.0)	28 (26.9)	66 (63.4)	8 (7.7)	1 (1.0)	104(100.0) 17.7
경 북	1 (1.1)	11 (12.1)	75 (82.4)	4 (4.4)	0	91(100.0) 15.5
경 남	2 (2.4)	24 (28.2)	52 (61.2)	5 (5.9)	2 (2.4)	85(100.0) 14.5
재 주	0	1 (5.9)	16 (94.1)	0	0	17(100.0) 2.9
계	6 1.0	123 21.0	418 71.2	36 6.1	4 0.7	587 100.0

學歷別로는 國卒, 中卒等 低學歷層의 教育費支出 意思가 高學歷層보다 높았으며 耕地面積別로는 이렇다할 特徵이 없었다.

營農部門 擴大意思是 濟州, 慶南, 全南, 京畿의 順이었으며 國卒과 大卒이 높은 意慾을 보이는 반면 中卒의 반응이 가장 낮았다.

耕地規模別로는 3ha 이상과 0.5ha 미만의 擴大意思가 각각 35.7%, 35.5%로 높게 나타났으며 0.5ha부터 2ha까지는 꼭 같은 27.3%가 영농 확대의사를 가진 반면 2~3ha의 農家에서는 단 7.4%만이 農事를 늘일 생각이었다. <表 19>

農機械購買意思를 地域別로 보면 京畿道가 越等하게 높고 機械化의 基盤이 弱한 全北과 慶北이 낮았다. 學歷別로는 學歷과 正比例하고, 耕地面積別로보면 耕地規模가 클수록 農機械購入意思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3ha 農家와 3ha 이상 農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所得水準別로 보면 年間 100萬원 미만 農家は 營農擴大에, 70萬원부터 160萬원까지는 子女教育에 置重할 생각이며, 160萬원 이상은 農機械장만과 貯蓄에 他階層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2. 教育觀

應答者들의 80%가 農村을 떠날 意思가 없거나 설혹 떠나더라도 돈을 벌어 錦衣還鄉해서 營農에 종사할 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長男에게 農業을 繼承시키려는 應答者는 12.8%에 불과하며 꼭 農事를 짓게 하겠다는 반응은 6.1%에 不過하다.

따라서 應答者의 大多數가 當代에는 農村에서 살되 다음 世代는 農業以外的 分野에서 일하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所得이 늘어나도 이를 子女教育에 最優先的으로 投資하려 하고 있다.

이에 農業을 子女에게 勸獎할 것인가, 아니면 子女가 어떤 職業에 종사하기를 期待하며, 이를 위해서는 長男, 次男이하의 아들과 딸에게 어느정도까지의 教育을 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應答을 分析했다.

가. 『子女에게 農業을 勸할 것인가』.

全體意思是 他職業을 勸獎할 생각이 21.0%, 子女들의 自體的 意思에 맡기겠다가 71.2%, 農業을 계승토록 하고 協助하겠다는 應答이 6.1%였다.

地域別로 他職業勸獎意思가 가장 많은 곳은 慶南(28.2%)이었으며 다음으로 全南(26.9%), 忠北(26.2%), 全北(25.4%), 忠南(22.1%)의 順이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12~14%였다.

다만 民俗이 다른 淸州는 대부분(94.1%)이 子女의 뜻에 맡긴다는 반응을 보였다.

農業을 勸獎하겠다는 應答者比率는 江原이 가장 높아 11.9%였고 全北이 8.5%, 대체로 6~7%였으나 慶北은 4.4%, 忠南 1.5%였다. <表 20>

他職業從事를 권장하겠다는 應答者를 學歷別로 보면 國卒이 25.9%로 가장 많고 中卒 21.0%, 高卒 19.3%, 大卒 14.3%였다. 한편 自立的의사에 맡기겠다는 의견은 國卒이 가장 적고 學力이 높을수록 많아져서 大卒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農業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應答者는 中卒이 단연 많았고 國卒과 高卒은 같고 大卒이 가장 적었다. <表 21>

耕地面積別로 보면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다른 職業을 권장하는 비율이 줄어드나 3ha 이상만은 例外여서 他職勸獎比率가 가장 높았다.

반대로 農業勸獎比率는 耕地의 規模와 比例해서 많아지나 2~3ha 農家は 매우 낮은 反應을

表 21 농업을 장녀에게 권장할 것인가

(괄호안은 %)

	무응답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자녀들의 자율적 의사	전적으로 권장	모르겠다	계
국 출	4 (3.6)	29 (25.9)	72 (64.2)	5 (4.5)	2 (1.8)	112(100.0) 19.1
중 출	1 (0.4)	50 (21.0)	166 (69.7)	21 (8.8)	0	238(100.0) 40.5
고 출	1 (0.5)	39 (91.3)	151 (74.8)	9 (4.5)	2 (1.0)	202(100.0) 34.4
대 출 이상	0	5 (14.3)	29 (82.9)	1 (2.9)	0	35(100.0) 6.0
계	6 1.0	123 21.0	418 71.2	36 6.1	4 0.7	587 100.0

表 22 농업을 자녀에게 권장할 것인가

	무응답	다른 직업 권장	자녀들 자율적 의사	전적으로 권장	모르겠다	계
무응답	0	0	7	100	0	7 1.2(100)
경종외	1	14.3	0	6	85.7	0 7 1.2 "
0.5ha 미만	3	2.7	28	25.2	77	69.4 3 2.7 0 111 18.9 "
0.5~1ha	2	0.9	48	21.1	163	71.8 13 5.7 1 0.4 227 38.6 "
1~1.5ha	0		31	22.3	95	68.3 12 8.6 1 0.7 139 23.7 "
1.5~2ha	0		9	16.4	40	72.7 5 9.1 1 1.8 55 9.4 "
2~3ha	0		1	11.1	22	81.5 1 3.7 1 3.7 27 4.6 "
3ha 이상	0		4	28.6	8	57.1 2 14.3 0 14 2.4 "
계	6	1.0	121	21.0	418	71.2 36 6.1 4 0.7 587 100 "

보였다. <表 22>

所得水準別로 보면 他職業勸奨比率는 階層間에 차이가 별로 없어 大同小異했으며, 農業勸奨은 100萬원~130萬원 階層이 단연 높아 他階層의 近 2배에 達했다.

나. 바람직한 長男의 職業

우리나라 사람 특히 農民의 男兒選好와 長男에 對한 期待는 유다른 面이 있다. 한두世代 前만 해도 長男을 家門과 家業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 社會的 通念이었다. 그러면 工業化過程의 農民은 어떤 職業을 長男의 理想的 職業이라고 보고 있는가.

標本全體의 意思는 工業時代에 발맞추어 工業技術者가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人氣높은 職業은 事業家로 13.3%였으며, 公務員과 農業이 같은 12.8%, 다음이 敎員 9.5%였다. 長男을 政治家(6.2%)나 職業軍人을 만들겠다는 農民도 相當數 있었으나 會社

員(2.9%)이나 商人(2.2%)을 願하는 比率는 매우 낮았다.

地域別로는 技術者希望의 경우 慶南, 忠南, 全南, 慶北의 順으로 많았고, 濟州, 江原, 忠北이 적었다.

事業家는 濟州, 全南, 京畿, 忠南의 순서로 願하고 있었으며 慶南, 慶北, 忠北이 적었다.

公務員希望 應答者는 全北, 慶北, 忠南이 가장 많고 濟州, 江原은 적었다.

農業을 繼承시키려는 應答者는 江原이 壓倒的으로 많아 33.3%, 忠北 17.1%, 全北 15.9%였는데 營農條件이 比較的 나쁘다는 共通點이 있어 보다 詳細한 調査가 要請된다. 가장 낮은 反應을 보인 地域은 濟州였고 다음은 慶北, 全南의 順이었다.

敎員希望은 地域間 差異가 별로 없으며 政治家는 慶南, 慶北이 단연 많았다.

應答者의 學歷別로 보면 學歷이 낮을수록 技

表 23 學歷別 바람직한 長男의 職業

(괄호안은 %)

	기술자	공무원	상업	농업	회사원	교원	정치가	사업가	수산업	군인	기타	계
무응답	1 (50.0)	1 (50.0)	0	0	0	0	0	0	0	0	0	2 0.3 (100)
무학	0	0	0	0	0	0	0	0	0	0	0	0 0.0
국해	2 (50.0)	0	0	1 (25.0)	0	0	0	1 (25.0)	0	0	0	4 0.7 (100)
국졸	36 (35.0)	14 (13.6)	2 (1.9)	12 (11.7)	4 (3.9)	11 (10.7)	9 (8.7)	6 (5.8)	0	4 (3.9)	3 (2.9)	101 17.8 (100)
중졸	72 (30.8)	32 (13.7)	7 (3.0)	38 (16.2)	9 (3.8)	20 (8.5)	13 (5.6)	26 (11.1)	1 (0.4)	8 (3.4)	7 (3.0)	233 40.5 (100)
고졸	58 (29.1)	24 (12.1)		19 (9.5)	3 (1.5)	19 (9.5)	12 (6.0)	38 (19.1)	2 (1.0)	13 (6.5)	7 (3.5)	199 34.4 (100)
대졸상	9 (25.7)	3 (8.6)	0	4 (11.4)	1 (2.9)	5 (14.3)	2 (5.7)	6 (17.1)	10 (2.9)	2 (5.7)	2 (5.7)	35 6.1 (100)
계	178 30.8	74 12.8	3 2.2	74 12.8	17 2.9	55 9.5	36 6.2	77 13.3	4 0.7	27 4.7	19 3.3	574 100

表 24 耕地規模別 바람직한 長男의 職業

	기술자	공무원	상업	농업	회사원	교원	정치가	사업가	수산업	군인	기타	계
무응답	1 (14.3)	0	0	2 (28.6)	0	1 (14.3)	0	2 (28.6)	0	1 (14.3)	0	7(100.0) 1.2
경중의	2 (28.6)	2 (28.6)	0	0	0	1 (14.3)	0	1 (14.3)	0	0	1 (14.3)	7(100.0) 1.2
0.5ha	38 (35.2)	11 (10.2)	3 (2.8)	6 (5.6)	4 (3.7)	11 (10.2)	9 (8.3)	16 (14.8)	1 (0.9)	4 (3.7)	5 (4.6)	108(100.0) 18.7
0.5~1ha	79 (35.4)	26 (11.7)	6 (2.7)	30 (13.5)	5 (2.2)	19 (8.5)	16 (7.2)	27 (12.1)	2 (0.9)	10 (4.5)	3 (1.3)	223(100.0) 38.6
1~1.5ha	35 (25.5)	21 (15.3)	1 (0.7)	20 (14.6)	4 (2.9)	15 (10.9)	8 (5.8)	17 (12.4)	0	7 (5.1)	9 (6.5)	137(100.0) 23.7
1.0~2ha	13 (23.6)	11 (20.0)	3 (5.5)	10 (18.2)	2 (4.6)	5 (9.1)	0	5 (9.1)	1 (1.8)	2 (3.6)	3 (5.5)	55(100.0) 9.5
2~3ha	8 (29.6)	3 (11.1)	0	1 (3.7)	1 (3.7)	2 (7.4)	2 (7.4)	6 (22.2)	0	3 (11.1)	1 (3.7)	27(100.0) 4.7
3ha 이상	2 (14.3)	0	0	5 (35.7)	1 (7.1)	1 (7.1)	1 (7.1)	3 (21.4)	0	0	1 (7.1)	14(100.0) 2.4
계	178 30.8	74 12.8	13 2.2	74 12.8	17 2.9	55 9.5	36 6.2	77 13.3	4 0.7	27 4.7	23 4.0	578 100.0

術者가 되기를 바라는 應答이 많았다. 事業家希
望은 高卒, 大卒層이 많고 公務員은 國卒, 中卒
이 많았다. 農業의 代를 물리겠다는 應答을 中
卒이 越等히 많았으며 他學力層은 큰 差異가 없
었다. <表 23>

耕地規模別로는 耕地의 規模에 反比例해서 小
農일수록 技術者를 願했으나 2~3ha 規模의 應
答者는 1~1.5ha 農家보다도 높은 比率로 技術
者를 願했다<表 24>. 이 階層은 都市로 移住
하겠다는 意向도 隣接階層보다 훨씬 많았고<表

14>, 所得이 늘더라도 營農部門을 擴大할 意思
가 매우 적으며 <表 19> 農業을 子女에게 勸獎
할 意思도 거의 없는<表 22> 異色の 階層인바
보다 精密한 調査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長男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長男에게 어느 程度까지 教育을 시킬 것인가
에 對한 應答分析이다.

應答者의 95.7%가 高卒과 大卒以上을 바라고
있었으며 無應答과 모르겠다는 反應은 아직 子
女가 없거나 子女의 나이가 어린 것으로 推定된

表 25 學歷別 長男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괄호안은 %)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국	졸	2	1.8	1	0.9	54	48.2	47	41.9	8	7.2	112	19.1 (100.0)
중	졸	0		3	1.3	98	41.2	133	55.9	4	1.7	238	40.4 (100.0)
고	졸	0		3	1.5	43	21.3	152	75.2	4	2.0	202	34.4 (100.0)
대	졸 이상	0		0		3	8.6	32	91.4	0		35	6.0 (100.0)
계		2	0.3	7	1.2	198	33.7	364	62.0	16	2.8	587	100.0

表 26 耕地面積別 長男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무응답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무응답	0	0	0	1	14.3	6	7(100) 1.2
경 중 외	1	14.3	0	2	28.6	4	7 " 1.2
0.5ha 미만	1	0.9	1	0.9	2	1.8	48 43.2 56 50.5 3 2.7 111 " 18.9
0.5~1ha	2	0.9	1	0.4	2	0.9	83 36.6 134 59.0 5 2.2 227 " 38.7
1~1.5ha	1	0.7	0	2	1.4	39	28.1 94 67.6 3 2.2 139 " 23.7
1.5~2ha	0	0	1	1.8	18	32.7	36 65.5 0 55 " 9.4
2~3ha	0	0	0	4	14.8	23	85.2 0 27 " 4.6
3ha 이상	0	0	0	3	21.4	11	78.6 0 14 " 2.4
계	5	0.9	2	0.3	7	1.2	198 33.3 364 62.0 11 1.9 587 100

다. 高卒 33.7%, 大卒以上 62.0%였다.

地域別로 보면 94.1%가 大卒以上을 願하는 濟州를 除外하고는 慶北이 가장 높고, 全北, 全南, 忠北이 비슷한 水準이고, 大卒希望度가 가장 낮은 地域은 江原, 忠南이었다.

應答者의 學歷과 期待教育水準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國卒의 41.9%, 中卒의 55.9%, 高卒의 75.2%, 大卒以上の 91.4%가 長男에게 大學以上の 教育을 시켜야겠다고 應答했다. <表 25>

耕地面積別로 보아도 0.5ha 미만의 50.5%가 大卒을 期待하는 것을 비롯해서 規模가 커질수록 大卒希望이 늘어 2~3ha에서는 85.2%에 達했다. 그러나 3ha 이상은 2~3ha 階層보다 낮은 78.6%였다. <表 26>

所得水準別로도 耕地規模와 비슷한 現象을 나타내어 年間所得이 많을수록 大卒期待率도 높아지나 160萬원~190萬원의 階層만은 隣接階層보

다 훨씬 낮은 期待를 보였다.

라. 長男이외의 아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標本의 平均値는 長男의 경우와는 매우 달라 大學以上(44.5%)보다 高等學校까지(48.2%)를 期待하는 比率이 높았다.

高卒보다 大學以上을 더 希望하는 地域은 濟州(88.2%), 江原(50.0%), 京畿(49.2%), 忠北(47.6%)이었으며 高卒希望率이 높은 地域은 忠南(58.8%) 全南(53.8%) 慶南·慶北이었으며 全北은 高卒과 大卒의 期待比率이 꼭 같았다.

學歷別로는 國卒과 中卒父兄은 高卒아들을, 高卒과 大卒父兄은 大卒을 希望하는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大卒을 期待하는 경우는 學歷階層別 隔差가 커서 國卒은 27.7%, 中卒은 37.7% 高卒은 55.4% 大卒은 80.0%가 長男以外 아들 的 大學教育 履修를 期待하고 있었다.

中卒까지만 期待하는 應答은 主로 國卒과 中

表 27 學歷別 長男이외의 아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右: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르겠다		계	
국 중 고 대	출 생	1	0.9	6	5.4	63	56.2	31	27.7	11	9.8	112	19.1(100)
	출 생	0		5	2.1	135	56.7	90	37.8	8	3.3	238	40.5(100)
	출 생	0		1	0.5	79	39.1	112	55.4	10	5.0	202	34.4(100)
	출 생	1	2.9	0		6	17.1	28	80.0	0		35	6.0(100)
계		2	0.3	12	2.0	283	48.2	261	44.5	29	2.7	587	100

表 28 耕地規模別 長男이외의 아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무 응 답	0	0		0		1	14.3	6	85.7	0		7(100)	1.2	
경 중 의	1	14.3	0		2	28.6	2	28.6	2	28.6	0		7	"
0.5ha 미만	3	2.7	1	0.9	5	4.5	64	57.7	34	30.6	4	3.6	111	"
0.5~1ha	7	3.1	0		2	0.9	116	51.1	96	42.3	6	2.6	227	"
1~1.5ha	1	0.7	0		3	2.2	67	48.2	64	46.0	4	2.9	139	"
1.5~2ha	0		0		0		23	41.8	30	54.5	2	3.6	55	"
2~3h	1	3.7	0		0		9	33.3	17	63.0	0		27	"
3ha 이상	0		1	7.1	0		1	7.1	12	85.7	0		14	"
계	13	2.2	2	0.3	12	2.0	283	48.2	261	44.5	16	2.7	587	100

表 29 地域別 딸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괄호안은 %)

		국립		중		고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경 기	2(3.0)	0		1(1.5)		44(65.6)		19(28.4)		1(1.5)		67	11.4 (100.0)
강 원	0	0		4(9.5)		29(69.0)		8(19.0)		1(2.5)		42	7.2 (100.0)
충 북	2(4.8)	0		3(7.2)		24(57.1)		12(28.6)		1(2.4)		42	7.2 (100.0)
충 남	2(3.0)	0		12(17.6)		43(63.2)		10(14.7)		1(1.5)		68	11.6 (100.0)
전 북	2(2.8)	0		5(7.1)		48(67.6)		14(19.7)		2(2.8)		71	1.1 (100.0)
전 남	6(5.8)	0		9(8.7)		64(61.4)		22(21.2)		3(2.9)		104	17.7 (100.0)
경 북	7(7.7)	0		8(8.8)		59(64.8)		14(15.4)		3(3.3)		91	15.5 (100.0)
경 남	2(2.4)	1(1.2)		7(8.2)		62(72.9)		12(14.1)		1(1.2)		85	14.5 (100.0)
계 주	1(5.9)	0		0		7(41.2)		9(52.9)		0		17	2.9 (100.0)
계	24(4.1)	1(0.3)		49(8.3)		380(64.7)		120(20.4)		13(2.2)		587	100.0

卒階層에서 나왔다. <表 27>

耕地面積別로는 역시 경지가 넓을수록 大卒希望比率이 현저하게 높았다. 0.5ha 미만계층의 30.6%, 0.5~1ha계층의 42.3%, 1~1.5ha계층의 46.0%, 1.5~2ha의 54.5%, 2~3ha의 63.0%, 3ha 이상의 85.7%가 長男이외의 아들의 大學教育을 願하고 있었다. 中學校까지만 가르치겠다는 應答은 1.5ha미만의 階層에서만 나왔다.

<表 28>

다. 딸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全體應答者의 64.7%가 高卒을, 20.4%는 大卒을, 그리고 8.3%는 中卒을 期待하고 있었다.

딸의 大學教育을 期待하는 比率이 가장 높은 地域은 濟州로 52.9%에 달했으며, 忠北 28.6%, 京畿 28.4%, 全南 21.2%, 全北 19.7%의 順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慶南(14.1%), 忠南(14.7%)이었다. 한편 中卒정도를 기대하는 比率은 忠南이 가장 높아 17.6%였고 그 이외의 지역은 7~9%의 比率이었으나 京畿는 1.5%로 매우 낮았다. <表 29>

表 30 學歷別 階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右: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국	졸	1	0.9	17	15.2	71	63.4	14	12.5	9	8.0	112	19.1(100)
중	졸	0		22	9.2	164	68.9	42	17.6	10	4.2	238	40.5(100)
고	졸	0		9	4.5	130	64.4	47	23.3	16	7.8	202	34.4(100)
대	졸 이상	0		1	2.9	15	42.8	17	48.5	2	5.8	35	6.0(100)
계		1	0.2	49	8.3	380	64.7	120	20.4	37	6.3	587	100

表 31 耕地規模別 階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무	응답	0		0		4	57.1	3	42.9	0		7(100)	1.2
경	종외	0		4	57.1	1	14.3	2	28.6	0		7	1.2
0.5ha	미만	4	3.6	1	0.9	19	17.1	71	64.0	15	13.5	111	18.9
0.5~1ha		10	4.4	0		14	6.2	151	66.5	46	20.3	227	38.7
1~1.5ha		9	6.5	0		11	7.9	84	60.4	31	22.3	139	23.7
1.5~2ha		0		0		1	1.8	44	80.0	8	14.5	55	9.4
2~3ha		1	3.7	0		0		19	70.4	7	25.9	27	4.6
3ha 이상		0		0		0		6	42.9	8	57.1	14	2.4
계		24	4.1	1	0.2	49	8.3	380	64.7	120	20.4	587	100

表 32 所得別 階層에 對한 期待教育水準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모르겠다		계	
50만원	미만	3	7.1	0		11	26.2	21	50.0	5	11.9	2	4.8
50~70	#	1	1.6	0		14	22.6	38	61.3	8	12.9	1	1.6
70~100	#	7	6.5	1	0.9	9	8.3	72	66.7	18	16.7	1	0.9
100~130	#	2	2.1	0		5	5.3	69	72.6	18	18.9	2	2.1
130~160	#	8	9.2	0		3	3.4	55	63.2	19	21.8	2	2.3
160~190	#	0		0		2	2.8	52	72.2	16	22.2	2	2.8
190~220	#	2	3.2	0		3	4.8	41	65.1	13	20.6	4	6.3
220만원	이상	1	1.7	0		2	3.4	32	55.2	23	39.7	0	
계		24	4.1	1	0.2	49	8.3	380	64.7	120	20.4	587	100.0

學歷別로 보면 大卒期待率은 學歷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高卒期待率은 國卒, 中卒, 高卒間에 차이가 거의 없고 大卒階層만 낮았다. 한편 中卒期待率은 學歷이 낮을수록 높아져서 應答者가 國卒인 경우에는 15.2%에 達했다.

<表 30>

耕地規模別로 보면 大學期待率은 規模가 커질수록 많아지나 여러면에서 特異한 反應이 나오

는 1.5~2ha 階層은 高率期待率이 높은편이며 中率期待率은 0.5ha미만(17.1%), 耕種外(57.1) %에 集中되어 있어 耕種外의 所得水準을 미루어 알만 하겠다. <表 31>

所得水準別로는 大學期待는 所得의 額數와 正比例하고 中學期待率은 逆比例했다. 그러나 190 萬원~220萬원 階層은 隣接階層에 比해서 大學期待率은 낮고 中學期待率은 높았다. 表< 32>